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2.20(월) 중간	배포	2017.2.17(금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(02-2100-2630)		담 당 자	조 남 훈 사무관 (02-2100-2631) 성 보 경 사무관 (02-2100-2632)	

제 목 :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

I. 개 요

- 2.17(금)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‘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’를 개최
 -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,
 -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,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.

<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>

- 일 시 : 2017.2.17(금), 14:00~15:30
- 장 소 : 이룸센터 회의실(여의도)
- 참 석 자
 - 금융위원회 위원장, 장애인단체*, 장애인 및 부모
 - *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,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, 한국농아인협회, 한국지체장애인협회
 - 금융감독원, 금융연구원, 은행연합회,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/단체

II. 주요 논의내용

1. 추진배경

-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('08.4월)등을 계기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*해 왔음

*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('13.2월, 인권위 협업),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서비스 개시('14.11월), 청각장애인 인터넷상담 실시('11.11월) 등

- 다만,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,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*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**한 것으로 파악

*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(인권위): ('13년) 55건→ ('14년) 62건→ ('15년) 82건

** (예) 장애인의 보험계약시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.4%에 달하며,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.5%로 비장애인(75.8%)보다 현격히 낮음

- 대출, 카드발급, 보험가입 등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,

< 장애인 금융접근성 애로 관련 사례 >

- (대출) 뇌병변·시각 장애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접수한 후 창구를 방문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에서 신청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
- (카드) 청각장애인 B씨는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, 본인 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카드발급 거절
- (보험)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,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

- 장애인이 모바일·ATM을 이용하거나,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*

* (예) 좁은 출입문, 층간이동 시설 미비 등으로 지체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이 높지 않고, 점자보안카드·확대경·보청기 등 금융편의 제공이 부족

2. 주요 건의사항

-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, 금융당국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함
-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·차별 관행 개선*,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** 등을 건의함
 - *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('13.2월~) 구체화·체계화
 - ** 장애인부양 신탁시 증여세 면제(현재 5억원) 한도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확대하고, 원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청
-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였고,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
-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, 은행에 경사로가 없거나 창구 높이가 높아 불편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함
- 이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,
 -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·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언함

3.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장애인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
- 우선, '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*'를 구성하여,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 조사(3월중)
 - *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연구원, 장애인단체 등

<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추진계획 >

- (조사대상) ①수요자 조사(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) ②금융권 대상조사(은행, 보험, 증권, 여신전문회사 등 **전 금융업권**)
- (조사방법 및 내용) 현장점검(금감원) 및 면접조사(금융연)를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시 **장애인단체 참여**
 - ① 장애인 대상조사(금융연구원, 장애인단체): 장애인 1000명 대상, 1:1면접
 - 표본선정 : 장애인구, 유형 분포에 따라 시도별 샘플링 조사
 - 조사내용 : 대출, 신용카드발급, 보험가입 등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 여부
 - ② 금융기관 대상 조사(금감원): 전 금융권 총 64개사
 - 조사내용 : 장애인이 모바일-ATM을 이용하거나,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
- (추진일정) 장애인 대상조사(표본선정, Pre-test(2월) → 면접조사(3월)), 금융기관 대상 조사(서면조사(2월) → 현장조사(3월))

-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,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(상반기 중) 후 실행해 나갈 계획

< 참고 >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

참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

- 요 며칠 기승을 부린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음.
내일(2.18)은 '눈이 녹아 비가오는 날'이라는 절기 우수(雨水)임
- 새 봄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,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함
- 오늘 참석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금융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
- * 주요 참석자
 - 장애인단체(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, 한국장애인단체협의회, 한국농아인협회, 한국지체장애인협회), 장애인 및 부모
 - 금감원 · 금융연구원 · 은행연 ·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

< 현장중심 정책의 중요성 >

- 저는 금융위원장 취임 때부터 '현장 중심' 정책을 강조하고, 현장에서 금융 관련 개선 과제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
- 금년에도 기업과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자주 찾아 뵙고,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움
 - 특히,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-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기 위해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오늘 간담회를 서둘러 개최한 것임

<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복지 개선 노력 >

-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%에 해당하는 250만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등록되어 있고, 이 중 90%는 질병 ·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 것으로 알고 있음
 - 따라서, 우리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, 장애문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
-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를 '시혜와 배려'보다는 '삶의 질과 권익 증진'에 두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오
 - 특히,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('08년) 이 시행된 후,
 - 금융권도 장애인 보험차별 관행 개선, 시각장애인용 금융 서비스(음성 OTP 서비스) 개발 등과 함께
 - '시각장애인 금융 가이드북(점자책, 오디오북)', '청각장애인 특화 교재(수화, 자막)' 개발 등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노력도 추진
- 그간 금융권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으나,
 - “보이지 않는 차별” 관행*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도 사실일 것임

*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, 대출 거절 및 추가 서류 제출 요청, 카드발급 거절 등

<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>

-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, 자산관리 등을 통해
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
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함
 - 특히, 최근들어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,
금융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,
 - 금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적절히 활용할수록,
금융상품이 주는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변화되고 있음
- 하지만,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혜택을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
충분히 배려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 - 편리한 자금조달, 불확실성 대비, 안전한 자산관리 등을 위한
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
장애인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,
 - 또한 기술발달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금융사기, 불법 광고등에
대한 보호도 더욱 두터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

<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 계획 >

- 이를 위해, 장애인들께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
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중임

- 조속한 시일내에 “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”를 실시하여,
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함
 - 은행·보험·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상품, 판매채널별로
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
 -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, 연구진이
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분들을 찾아뵙고 심층 면접도 할 예정
 -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들께서 금융서비스를
이용하는데 어려운 점들에 대한 개선과제들을 발굴하여,
 - 금융회사의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, 부당한
관행을 근절시키도록 유도하고,
 - 핀테크(Fin-tech)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도
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해 나가겠음
- 이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‘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
위한 종합 대책’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
 -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
주시길 부탁드립니다,
 - 금융권도 수익성만 우선한다는 시각보다는 국민의 한사람
한사람의 불편을 세심하게 챙긴다는 자세로 도와주시기 바람
 -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봄처럼 금융도 차가운 이미지에서
벗어나 따뜻하게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
-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에 대한 ‘보이지 않는 벽’을 허물고,
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